



다실에 모여 연신 행복을 부르짖는 만해마을 창작집필실 문인들. 왼쪽부터 평론가 권혁음, 시인 박찬일·박찬, 소설가 정찬, 시인 홍은택, 소설가 윤동주, 평론가 오창은씨.

만해마을 창작집필실 작가들

“심심해서라도 글 쓰게 돼”

문인들의 ‘꿈의 공간’ 3년간 150여명 거쳐 가 ‘주변 풍광 좋아 글 잘 나온다’ 행복한 비명도 대화 나누며 작품 구상·공유·검증도 이뤄져

만해사 행자승은 스물두 살, 곱상한 얼굴에 근력이 참 세지 험한 일 꽤나 겪어봤다는 그는 디지털 행자승, 엠피쓰리 다운받아 씨디로 노벨 굿지 이어폰 귀에 꽂고 세상과 접속하지 온갖 장르 섭렵한 그의 웨이버릿 싱어는 크라이닝 닷, 반색 승복을 빌려이며 말 달리지 하루 두 번, 영혼의 갈기털 휘날리며 말 달리지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행자승의 법고法鼓소리 참 예술이자 드림 치트 백발 비트로 읽어가는 그의 독경소리 참 경쾌하지 크라이닝 크라이닝 행자승은 스물두 살, 호두알 머리 속 초고속으로 질주하는 말발굽 소리 (홍은택의 시 ‘행자승의 근황’)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만해마을 창작집필실의 겨울은 뜨겁다.

최장 4개월을 머물 수 있는 이곳은 문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꿈의 시절’ 문예진흥원의 지원으로 숙식비는 모두 무료이다. 문을 연 2003년부터 3년 동안 150여명의 문인들이 거쳐 갔다. 거처간 문인들은 알게 모르게 ‘만해의 제자’가 되기도 한다.

문인들이 모여 집필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만해마을의 창작집필실과 소설가 박경리씨가 운영하는 토지문화관의 집필실 단 두 곳이다.

현재 만해마을 창작집필실에서는 김민기(희곡작가) 박찬(홍은택 이윤설 박찬일(이상 시인) 김병용 윤동주 정찬(이상 소설가) 평론가 오창은 권혁음씨 등이 창작열을 불태우고 있다. 문단의 중진급들이 한지붕 아래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진풍경이다.

“세 끼 밥이 맛있고 숙박시설이 훌륭해. 기자 양반은 여기 김치 먹어봤어? 환상이야.”

소설가 윤동주씨는 만해마을 창작집필실에 머물면서 좋은 점이 무엇이나는 기자의 질문에 먹거리 얘기부터 꺼냈다.

“배고파야 글을 더 잘 쓸 텐데 너무 잘 먹는 것 같다”며 박찬 시인도 먹을거리 예찬에 동참한다. 여기저기서 밥이 맛있어서 살이 찐다는 등 계속 여기서 살고 싶다는 등 이렇게 좋은 곳이 없다는 등 행복한 비명들이 들려온다.

먹고 자고 쓰고 세 가지만 하면 되기에 다른 어느 곳보다 글이 잘 써진다는 홍은택 시인은 3~4일에 한 번씩 입주한 동료문인들과 문학과 인생, 경험담 등을 논하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고 말한다. 살아온 내력이 쫄쫄이 따라 나오는데다가 술을 마시면서 상상력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거기에 그동안 가슴 속에 쟁겨놓았던 작품 구상을 꺼내 공유하고 검증하기도 한다.

지금 입주해 있는 열 사람의 문인 가운데 유일하게 두 번째 입실해 재수생(?)이라는 홍 시인은 만해마을 창작집필실을 행복한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심심해서라도 글을 쓰게 돼. 풍광 좋지, 생활 걱정 안 해도 되지, 술동무 있지. 집필실서 머물다 나간 이들 중에는 책 내는 이들이 많아.”

문예지에 발표할 소설을 준비 중이라는 정찬 소설가는 “12선녀탕 계곡이 워낙 좋아서 등산 삼아 운동 삼아 산책을 즐기며 건강을 챙긴다”며 주변 풍광의 매력을 설명한다. 그만의 건강비법인 줄 알았더니 12선녀탕 가는 길은 만해마을 창작집필실 식구들이 즐겨찾는 코스였다.

1월 4~16일 창작집필실에 머문 황지우 시인의 흔적은 홍은택 시인의 머리 위에서 찾을 수 있었다. “황지우 시인 모자를 빌려봤는데 내 평생 이렇게 맞는 모자를 발견한 것은 처음이야. 황 시인이 흔쾌히 모자를 주셔서 내가 가졌지.”

창작집필실에는 비밀이 없다. 밤마다 열린 창문 밖으로 모든 대화들이 숨김없이 드러나기 때

문이다. 때맞춰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윤동주 소설가가 등장한다. 박찬일 시인은 “어떻게 착하게만 살겠냐”며 단번에 반박을 한다.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 간의 진한 애정이 느껴진다.

24시간 라디오를 가족 삼아 살았다는 윤동주 소설가는 “라디오를 버리고 여기 오니까 생활이 달라져서 토비에서 틀어주는 음악을 들으며 작업을 하고 있다”며 “가끔 친구들이 위문을 오면 같이 하루 놀기도 한다”고 고백한다. “살아서 천국을 보는 것 같다”는 윤동주 소설가는 이곳에서 장편 소설을 집필 중이다.

10년째 물들여온 초록색 앞머리를 보여주며 “내 안에 초록 있다”를 외치는 박찬 시인은 “여기 있는 동안 술을 끊고 차로 연명하고 있다”며 “서울서 일주일을 밟고 있어도 다 읽을까 말까한 책을 하루 이틀에 다 읽어버릴 정도로 집중이 잘 된다”고 밝힌다.

시작(詩作)거리를 들고 들어왔다는 박찬일 시인은 “내가 만해마을과 인연이 깊어서 2박3일 일정으로는 자주 왔었다”며 “창밖으로 보이는 산줄기는 무궁무진한 시어를 전달해 준다”고 한다.

오창은 평론가는 “문예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데 편집회의 하러 서울 올라가는 시간도 야까울 정도로 이곳이 좋다”며 이곳에 머무는 문인들 모두 떠나기 싫어한다고 전한다.

새벽 5시와 저녁 7시, 만해마을에 울리는 범종·법고 소리는 집필실 식구들에게 평온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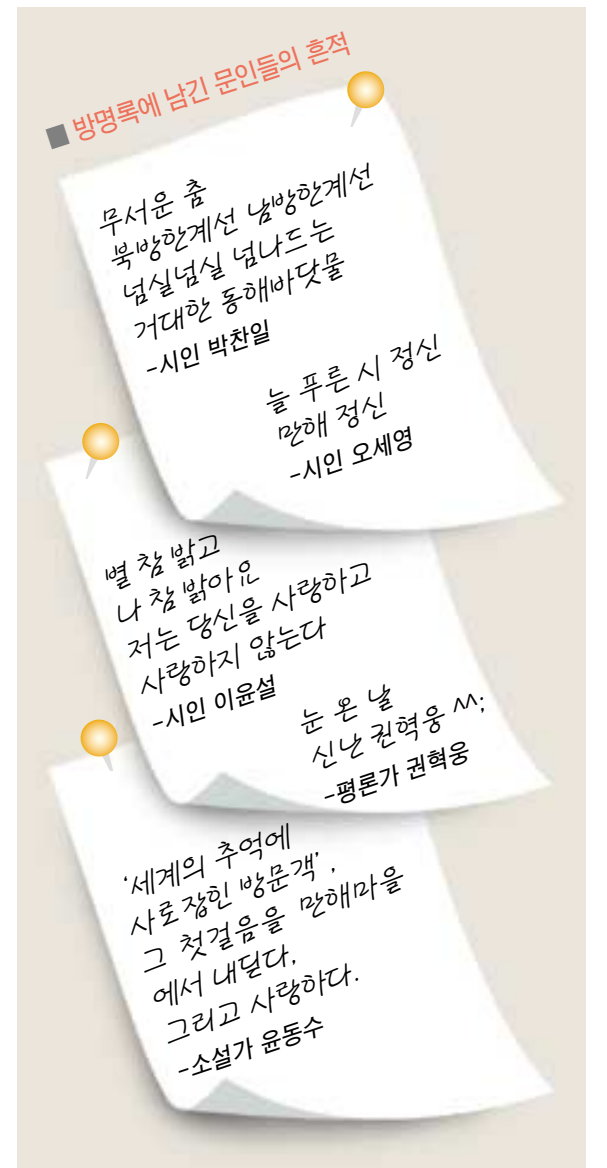
이다. 김민기 희곡작가, 정찬 소설가, 이윤설 시인 등은 매일 아침 예불에 꼬박꼬박 참석한다.

70년대를 풍미한 포크음악의 대부이자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의 연출가 김민기 희곡작가와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부문에 당선돼 시상식 참석차 서울에 간 이윤설 시인은 만나지 못했다.

만해 스님이 주석했던 백담사와 가까이 있는 터라 만해마을 창작집필실 식구들은 “알게 모르게 불교에 찾아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공간이자 시든 소설이든 그 결과물을 보다 더 훌륭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 마법의 공간”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가지 덧붙여 이곳 식구들은 사찰에서도 문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인들에게 사찰이 문을 열어주면 사찰과 불교를 소재로 글을 쓰게 될 것이고 넓은 의미로 포교도 된다는 것이다.

문인들에게 최대 찬사를 받는 만해마을 창작집필실. 그 찬사에 걸맞게 입방 경쟁도 치열하다. 대기 중인 문인들도 많다. “오세영 시인은 지난해 열을 남긴 만해마을 창작집필실에서 머물렀던 기억이 좋아 2월 1일 재입방을 예약해 놓았고 박찬원 시인, 이문재 시인, 박기동 시인, 박선욱 시인 등도 줄줄이 입방 예정”이라는 만해마을 운영위원장 이상국 시인은 “만해 스님의 문화적 열정과 민족애를 잇는 만해학파들의 보금자리”라고 은근한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인제/글=김지연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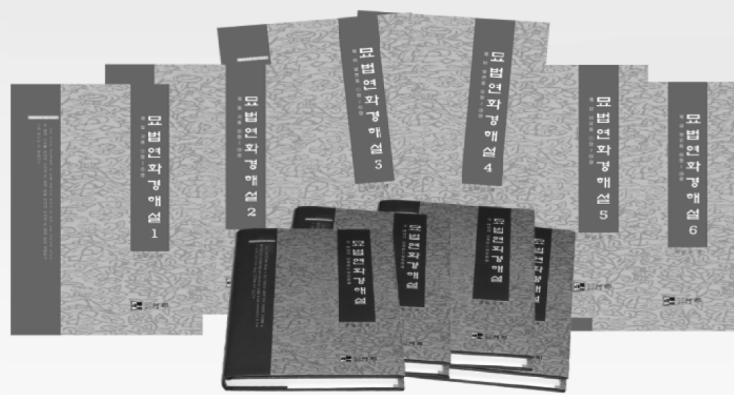
“우담발화 꽃”이 피는 이유는 진리(眞理)의 출현(出現)을 축하하기 위한 하늘(天)의 상서(祥瑞) 내림이다.

『묘법연화경』 내(內)에는 제일(第一)의 법(法)과 제이(第二)의 법(法)이 있음을 부처님께서 밝히고 계신다. 이러한 제일(第一)의 법(法)이 보살도(菩薩道)를 위한 (우주간의 법)이며 제이(第二)의 법(法)이 현재 문자(文字)로 전하여진 경(經)으로써 이를 《세간법(世間法)》이라고 한다.



◇ 무량의 경 I / II ◇ 신국판 양장 각권 : 18,000원

이러한 제일(第一)의 법(法)과 제이(第二)의 법(法)이 음양(陰陽) 합일(合一)을 이루게 되면 제삼(第三)의 근본진리(根本眞理)의 법(法)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듯 『묘법연화경』은 (우주간의 법)과 《세간법》과 《근본진리의 법》 셋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경(經)이다. 이러한 경(經)의 비유와 방편과 수리(數理)로 된 내용을 실상(實相)의 이치에 따라 모두 드러낸 것이 『묘법연화경』 해설경이다. 또한 보살도(菩薩道)를 위한 (우주간의 법)을 드러냄으로써 바른 보살도를 정리한 것이다. 이로써 학문(學問)의 완성 시대에 돌입하여 말세(末世)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 나온 묘법연화해설경이니 바른 부처님의 뜻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리는 바이다.



◇ 묘법연화경 해설된 부분 : 서문 / 방편론 / 비유론 / 관세음보살본품 ◇ 신국판 양장 각권 : 18,000원

『묘법연화경』을 상세히 해설한 최초의 책!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 (051) 723-2261

초월(超越)의 학문이 묘법연화경이다. 모든 종교(宗敎)와 종파(宗派)를

이러한 (우담발화 꽃)을 그대들이 《잠자리 앞에서 나온 꽃》이라고 아무리 부정을 하여도, 때맞춰 진리(眞理)의 서(書)는 이렇게 세간(世間)에 나타나신 것이다. 서기 2000년 필자의 저서 ‘실상의 법’이 세간에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하늘(天)은 상서(祥瑞)를 주시어 우담발화 꽃을 피우셨고 이제 다시 을유년(乙酉年)에도 『묘법연화경』 해설의 출현을 위해 우담발화꽃을 피워 하늘(天)은 상서(祥瑞)를 주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늘(天)의 상서(祥瑞)를 부정하는 그대들은 그대들만 크나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한법(一法) 『묘법연화경』이다. 이러한 한 법의 해설이 출간되니 세계의 모든 법화행자 들께서는 부처님의 근본 뜻이 담긴 이 경을 세로이 공부하시기를 바란다. 우주간의 비밀한 진리와 지상의 숨겨진 모든 진리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경이니 불자가 아닌 모든 분들도 함께 동참하여 진리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이 『묘법연화경』임을 밝히는 바이다.

